

KOSDAQ | 자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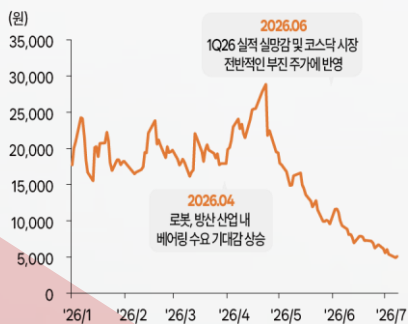
엔비알모션 (0004V0)

기술력 높은 베어링 부품 감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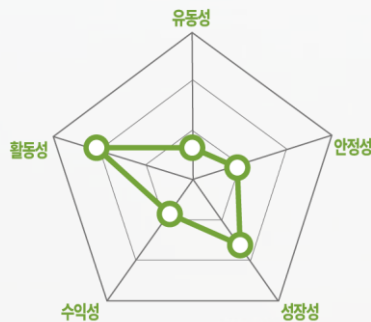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엔비알모션은 26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한 베어링 부품 기업. 2011년 삼경오토텍이란 사명으로 설립 후 독일 세플러 등 글로벌 고객 확대에 성장
- 투자포인트는 1) 생산 Capa 증설을 통한 성장, 2) 2027년부터 신제품(세라믹볼) 매출 발생, 3) 중장기적으로 실린드리컬롤러 사업화 기대
- 리스크 요인은 現 주력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기계의 저성장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
- 엔비알모션은 2026F PSR 1.0배로 거래 중. 엔비알모션은 상장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주로, 아직 시장 관심과 신뢰를 얻기에는 시간이 필요. 향후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통한 영업이익 흑자전환 달성이나 신제품 세라믹볼 매출액의 의미있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동사에 대한 시장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음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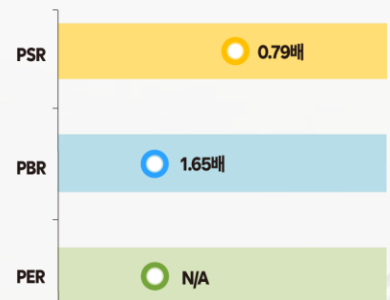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B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엔비알모션 (0004V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지은 jekim0216@kirs.or.kr

KOSDAQ

자본재

엔비알모션은 베어링 부품 전문기업

엔비알모션은 2011년 설립된 이후 베어링 부품인 테이퍼롤러, 스틸볼을 활발히 개발/생산. 2018년 코스닥 상장사 '나노'가 동사를 인수, 성장이 가속화되었음. 2026년 1월 스펙 상장.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은 테이퍼롤러 60.5%, 스틸볼 등 30.1%, 베어링레이스 등 9.4%

베어링 산업은 적용처를 확대하며 견고하게 성장할 전망

베어링은 회전축을 지지하고 마찰을 줄이는 기계 요소/부품. 베어링 산업은 베어링 부품인 전동체 공급 기업-완성 베어링 업체-전방산업으로 이어지며, 완제품은 SKF(스웨덴)·세플러(독일)·NSK(일본) 등이, 전동체는 소수 전문업체가 공급하는 구조. 글로벌 베어링 시장은 2025년 1,432억 달러에서 2033년 3,013억 달러로 연평균 9.75%로 성장할 전망. 베어링 시장은 전기차·항공우주·방산·로봇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되며 고정밀·고부가 베어링 제품 비중 상승 중. 베어링 부품 시장의 경쟁 기준은 가격뿐 아니라 정밀가공 기술, 양산 수율, 고객사 인증, 원가경쟁력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

엔비알모션 성장은 2027년에 본격화 기대

2026F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661억 원, -30억 원 전망. 3Q26말부터 Capa 증설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나 온기 효과는 2027년에 기대. 2027F 매출 793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흑자 전환 전망. 2027년 기대 요인은 기존 사업 Capa 증가 효과와 테이퍼롤러 위주 제품믹스 개선, 베어링레이스 등 매출 일부 회복세, 신제품(세라믹볼) 매출 발생임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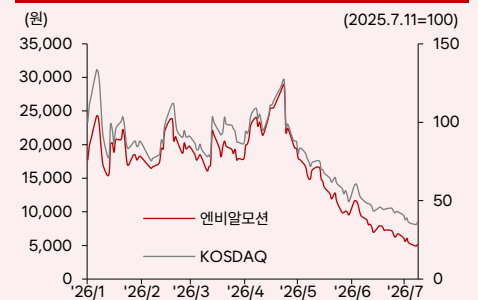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억원)	681	638	631	661	793
YoY(%)	N/A	-6.2	-1.2	4.8	19.9
영업이익(억원)	26	-41	-39	-30	25
OP 마진(%)	3.8	-6.4	-6.2	-4.5	3.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9	-76	-122	-37	6
EPS(원)	-881	-1,134	-1,260	-341	52
YoY(%)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배)	N/A	N/A	N/A	N/A	113.9
PSR(배)	0.0	0.0	0.0	1.0	0.8
EV/EBITDA(배)	8.2	32.3	18.9	28.7	10.3
PBR(배)	N/A	0.0	0.0	2.1	2.1
ROE(%)	123.0	-102.7	-46.1	-11.3	1.8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7/23)	5,900원
52주 최고가	28,850원
52주 최저가	4,905원
KOSDAQ(07/23)	790.28p
자본금	104억원
시가총액	650억원
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54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97억원
외국인지분율	9.12%
주요주주	(주)나노 외 2인 25.5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6.9	-64.7	
상대주가	-17.5	-55.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엔비알모션은 2011년 설립된 베어링 부품 전문기업

**2011년 삼경오토텍으로 설립
이후 세플러 한국법인 합병과
글로벌 고객 확대로 성장한
베어링 부품 전문기업**

엔비알모션은 베어링 부품 전문기업이다. 2011~2018년 시기는 엔비알모션에게 있어서 태동기라 볼 수 있다. 동사는 2011년 ‘삼경오토텍’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베어링 부품인 테이퍼롤러, 스틸볼을 생산하였다. 2012년 독일 베어링 기업 세플러의 한국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 세플러에 스틸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일본 베어링 기업 NSK의 한국협력업체로서 등록을 마친 후 각종 베어링 부품을 공급했다. 2016년 일본 베어링 기업 GMB(향으로 스틸볼을 납품하였고, 한국 베어링 기업 일진베어링(향으로 테이퍼롤러 및 스틸볼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2018년 동사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코스닥 상장사 ‘나노’가 동사를 인수하며 상호명을 기존 삼경오토텍에서 ‘NBG’로 변경했다.

2019년 이후 시기는 엔비알모션에게 본격적인 성장기였다. 동사는 2019년 베어링 부품 중 하나인 베어링레이스 수출 사업을 개시했고, 독일 베어링 기업 세플러의 한국법인(테이퍼롤러 사업부)을 인수하였다. 이 인수합병으로 동사는 테이퍼롤러 사업 관련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되었다. 엔비알모션은 2020년 스웨덴 베어링 기업 SKF에 한국 협력기업으로 등록된 후 각종 베어링 부품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베어링산업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년 동사는 독일 세플러로부터 ‘Korea Best Supplier Award’를 수상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EV(전기차)용 세라믹 베어링 개발과제 14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 이러한 수상과 과제 수주는 동사의 베어링 부품 기술력을 관련 업계에 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동사는 독일 세플러와 테이퍼롤러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22년 각종 수상과 수주가 다수 이어졌다. 또 한 번 독일 세플러로부터 ‘Korea Best Supplier Award’를 수상했고, 미국 Rivian, Ford로부터 전기 픽업트럭용 고성능 롤러 제품 납품 승인 및 수주를 획득했다. 한편, HEV 및 EV용 고부가 열처리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했고, 미국 테슬라(향으로 감속기용 전구동체 제품 개발 및 수주에 성공했다.

2024년 엔비알모션은 신제품인 세라믹볼 파일럿 양산을 성공하고 고부가 세라믹볼 개발 수주를 획득하였다. 독일 S사로부터 로봇용 베어링 부품 수주도 성공하였고, G5(Grade 5)급 베어링 부품 관련 독일 S사로부터 제품을 승인받고 공급하기 시작했다.

2025년은 동사에게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었다. 2025년 동사는 사명을 기존 NBG에서 ‘엔비알모션’으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사명 엔비알모션은 ‘Next Ball and Roller Motion’을 의미하여 베어링 부품 선도기업으로서 비전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일본 S사로부터 세라믹볼 제품 관련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리고 한국 완성차 대기업인 H사, K사로부터 부품국산화 차원 휠허브 베어링 제품 수주에도 성공했다.

엔비알모션은 2026.1.14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코스닥 상장 형식은 일반 IPO가 아닌 스펙 상장이었었는데,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스팩’과 합병을 통해서였다.

정리하여 보면, 엔비알모션은 베어링 제품 중 핵심 구동 부품인 테이퍼롤러, 스틸볼 사업 기반의 베어링 부품 개발/제조/판매 전문기업이라 볼 수 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신제품인 세라믹볼 제조/판매 사업을 2027년부터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신제품인 실린드릭롤러 제품을 2028년경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어링 부품 사업의 경우 기존 산업용 수요뿐만 아니라 EV, 로봇, 우주/항공 등으로 그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어 엔비알모션 성장성이 기대된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엔비알롤러(지분 100%)를 보유**

엔비알모션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1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기업 '엔비알롤러'는 2018년 설립된 테이퍼롤러 개발 및 제조/판매 기업이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3.9억 원이며 관련하여 지분율은 100.0%이다.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동사 매출은 테이퍼롤러·스틸볼
등·베어링레이스 등 3개 제품으로
구성되며, 27년 세라믹볼·28년
실린드릭롤러가 추가될 전망**

엔비알모션 매출액은 테이퍼롤러, 스틸볼 등, 베어링레이스 등 3개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직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027년부터 세라믹볼 제품이, 2028년부터 실린드릭롤러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은 테이퍼롤러 60.5%, 스틸볼 등 30.1%, 베어링레이스 등 9.4%이다. 각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테이퍼롤러는 볼 대비 큰 하중을
견디는 원추형 구동체로,
자동차·트럭·산업용 장비 등에
적용**

1) 테이퍼롤러(60.5%)

테이퍼롤러(Tapered Roller)는 베어링의 구성품으로, 강구(볼) 대비 더 큰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부품이다. 고정밀 테이퍼롤러 제품은 테이퍼롤러 베어링 전용 구동체 제품이며, 원추형 설계로 하중 지지력이 뛰어나면서 단면 구동부가 크라우닝 형상으로 구현되어 고하중 고속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재질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이고, 롤러 베어링 부품, 자동차/트럭 부품, 가전제품 부품, 산업용 장비 부품 등으로 활용/적용된다.

테이퍼롤러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테이퍼롤러 적용분야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틸볼은 경도·내구성이 우수한
불형 부품으로 휠허브·조향·변속기
등에 쓰이며, 범용·초정밀(G5) 등
라인업을 보유

2) 스틸볼 등(30.1%)

스틸볼(Steel Ball)은 베어링의 구성품으로, 경도 및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높은 불형태의 제품이다. 재질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이고, 볼 베어링 부품,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부품, 기계 회전 부품 등으로 쓰인다.

동사 생산 제품은 주로 자동차용 휠허브베어링(차량 바퀴부), 조향장치, 변속기 또는 감속기에 장착되며, 산업용 기계의 회전부 또는 직선운동의 마찰력을 낮춰 에너지 및 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밀 기계류, 풍력, 전자제품, 중장비 부문의 회전부에 사용된다. 스틸볼 제품은 세부적으로 범용 스틸볼과 초정밀 스틸볼(Steel Ball-G5), 내구성을 향상시킨 Carbonitriding Ball, 슈볼(Shoe Ball, 2차 성형 및 가공에 용이하게 고안된 소프트볼) 등의 제품 라인업이 있다.

스틸볼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틸볼 적용분야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베어링레이스는 전동체 회전을
지지하는 부품으로, 외주 조달 후
유럽 트럭 메이커 위주로 납품

3) 베어링레이스 등(9.4%)

베어링레이스(race)는 베어링 전구동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베어링 외형을 형성하여 타 부품/어플리케이션과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베어링레이스 제품의 경우 외주 업체로부터 내재화된 공정으로 생산하여 전량 당사에 공급되며, 당사는 이를 해외 고객 위주로 납품하여 최종적으로 유럽 트럭 메이커인 다임러 벤츠, Volvo, MAN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베어링레이스

Race Way 생산품목
(트럭용 휠허브베어링 및
승용차용 3세대 플렌지)



고객사 조립 완성품
트럭용 휠허브(1,2세대) 승용차용 휠허브(3세대)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독일 S사, 일본 N-G사, 국내 K-사
등 글로벌 베어링 기업에
공급하며, 최종 수요처는
로봇·우주·방산으로 확대 전망

주 고객은 독일, 일본, 국내/외 글로벌 베어링 기업

동사는 베어링 부품 전문기업으로 핵심 부품인 테이퍼롤러, 스틸볼 등을 개발 및 제조하여 글로벌 베어링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고객으로는 독일 S사, 일본 N사, 일본 G사, 국내 K사, 국내 I사 등이 있다. 최종 고객은 현재 종합 완성차 기업, 트럭 제조사, 산업용 장비기업,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다. 향후 최종 고객군은 로봇, 우주/방산 관련 기업군으로 확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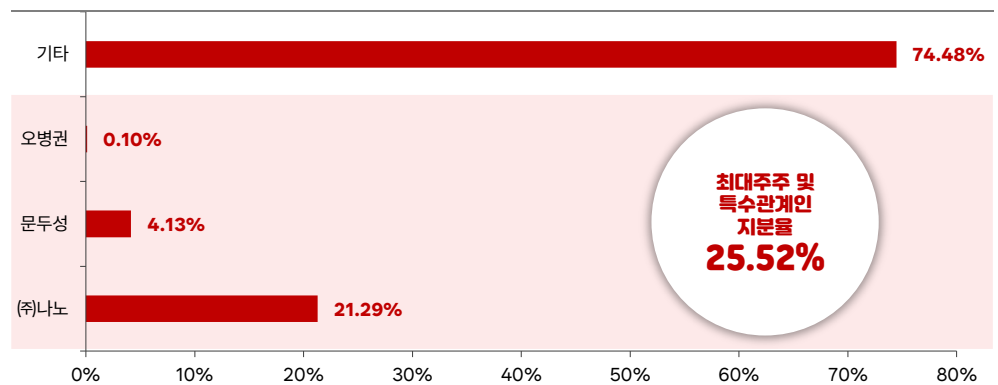
최대주주 등은 (주)나노 외 2인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주)나노로 동사 지분 21.29%를
보유

엔비알모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주)나노이고, 동사 지분 21.29%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은 (주)나노 외 2인으로, 지분율은 25.52%이다(1Q26 분기보고서 기준).

(주)나노는 1999년 설립된 기업으로, 화석연료, 폐기물, 각종 연료 등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Nitrogen Oxides)을 저감하는 탈질촉매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산업에서 탈질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인 탈질촉매와 관련된 제품/기술 또는 탈질설비를 다양한 수요고객에게 공급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나노는 화력발전소 중심의 저부가 탈질촉매 업체에서 선박 엔진, 북미 발전소, HRSG(스팀 제너레이터, 화학 플랜트, 제철 플랜트, 소각로 시스템 등의 산업 Plant 분야 열회수의 중요 공정에 사용되는 Fin Tube Type 열교환기로서, 가스터빈 배출가스의 여열을 회수하여 발전 용 및 공정용 증기를 발생시키는 폐열회수장치), 데이터센터향 고밀도 촉매 전문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엔비알모션 주주 현황



주: 1Q26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최대주주 (주)나노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억 원)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나노	1,032	652	380	110	-9	-11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1Q26기준 재무현황

문두성 대표이사는 1973년생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이다. 삼일회계법인, KPMG컨설팅을 거친 후 케이피에프에서 전략담당 임원 및 CFO로 재직하였으며, 2013~2018년 기간 (주)나노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엔비알모션의 대표이사를 맡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지속해오고 있다.



산업 현황

1 글로벌 베어링/베어링 부품 산업 현황

베어링은 회전축을 지지하고
마찰을 줄이는 기계
요소/부품으로, 전동체의
정밀도가 완성 베어링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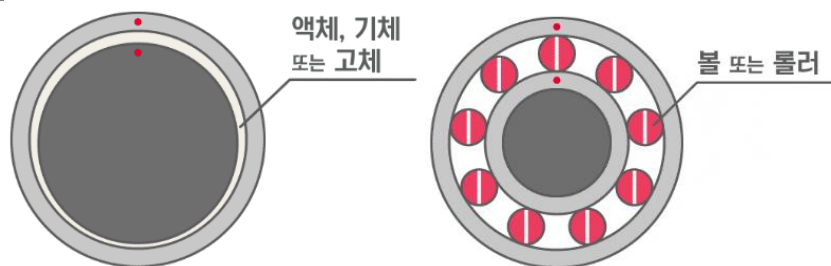
베어링은 회전축을 지지하고 마찰을 줄여 축이 일정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계 요소/부품이다. 기원은 바퀴와 축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축받침 장치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다. 증기기관·철도·공작기계 등 회전하는 기계가 보급되면서 고속/고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베어링 수요가 증가했으며, 정밀 금속가공 기술 발전으로 제품의 규격화와 대량생산 기반도 마련됐다. 이후 자동차·항공기·산업용 모터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베어링은 회전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으로 자리 잡았다.

베어링은 마찰 저감 방식에 따라 미끄럼베어링과 구름베어링으로 구분된다. 미끄럼베어링은 축과 베어링 면이 윤활막(오일 등)을 사이에 두고, 마찰면이 완전 접촉하지 않고 미끄러지며 회전하는 구조로, 엔진 크랭크축이나 대형 터빈 등 고하중 관련 용도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구름베어링은 내륜과 외륜 사이에서 전동체(볼 등)가 구르며 축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시동 마찰이 작고 규격화와 교체가 용이하여 자동차·산업기계·가전 등 대부분의 회전부에 적용되며, 전체 베어링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름베어링은 전동체의 형상에 따라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으로 나뉜다. 볼베어링은 구형 전동체가 궤도면과 점 형태로 접촉해 마찰이 작고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 롤러베어링은 원통형이나 원뿔형 전동체가 선 형태로 접촉하므로 동일한 크기의 볼베어링보다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구름베어링은 내륜·외륜·전동체·케이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볼이나 롤러 형태 전동체는 내륜과 외륜 사이에서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틸볼·세라믹볼·테이퍼롤러 등이 대표적이다. 전동체의 진원도와 표면 품질, 치수 편차는 완성된 베어링의 진동과 소음, 수명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형상과 품질의 전동체를 정밀하게 대량생산하는 역량이 완성 베어링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한다.

미끄럼베어링(좌), 구름베어링(우)



자료: NSK,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베어링 산업은 전동체 공급 기업-
완성 베어링 업체-전방산업으로
이어지며, 완성품은
SKF·세플러·NSK 등이, 전동체는
소수 전문업체가 공급**

베어링 산업 밸류체인은 볼·롤러 등 전동체를 생산하는 2차 벤더, 이를 조립해 완성 베어링을 공급하는 1차 벤더, 베어링을 적용하는 완성차·산업용 장비 업체로 구성된다. 전동체 업체가 완성 베어링 업체에 전동체를 공급하면, 완성 베어링 업체가 내·외륜과 케이지 등을 결합하여 베어링 완성품을 생산한 뒤 자동차·산업기계·로봇·풍력 등 다양한 전방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이다.

글로벌 완성 베어링 주요 플레이어로는 SKF(스웨덴), 세플러(독일), NSK·NTN·JTEKT(일본), Timken(미국) 등이 있다. 1907년 설립된 스웨덴 SKF는 베어링을 비롯해 실·윤활 시스템·상태감시 솔루션 등 회전 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 세플러는 INA와 FAG 브랜드를 통해 베어링을 공급하며, 2001년 FAG 인수와 2024년 비테스코 합병을 거쳐 자동차 부품과 E-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일본 NSK는 1916년 일본 최초로 볼베어링을 생산한 이후 산업기계·자동차용 베어링과 볼스크류 등 정밀기계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공작기계 주축용을 비롯한 고정밀 베어링 제품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NTN은 힐허브 베어링과 등속조인트 등 자동차용 제품군에 주력한다. 일본 JTEKT는 2006년 Koyo와 Toyoda의 합병으로 출범한 도요타 계열사로, 스티어링 시스템과 함께 Koyo 브랜드 베어링을 공급한다. 1899년 설립된 미국 Timken은 테이퍼롤러 베어링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으로, 철도·중공업·항공우주 등 고하중 응용처에 특화되어 있다.

국내 완성 베어링 시장은 자동차용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일진글로벌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힐베어링을 공급하고 있으며, 세플러코리아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법인도 자동차·산업기계용 베어링을 생산/공급한다. 특정 전방산업에 특화된 국내 베어링 업체로는 반도체 장비와 로봇용 정밀 베어링을 생산하는 에스비비테크, 풍력발전기용 대형 베어링을 공급하는 씨에스베어링 등이 있다.

베어링의 핵심 부품인 전동체 시장은 베어링 완성품 시장보다 관련 공급업체 수가 제한적이다. 글로벌 주요 전동체 업체로는 일본 츠바키 나카시마와 NSK 계열의 아마츠지스틸볼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엔비알모션과 비상장사 박원 등이 있다.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전동체는 SKF·세플러·NSK·일진글로벌 등 완성 베어링 업체들의 제품에 적용되어 자동차·트럭·산업용 장비·로봇·풍력발전기 등 다양한 전방산업으로 공급된다.

베어링 산업 밸류체인 및 주요 업체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주요 베어링 업체 실적은**자동차 수요 부진 속****산업재·항공우주 비중과 원가 개선****여부에 따라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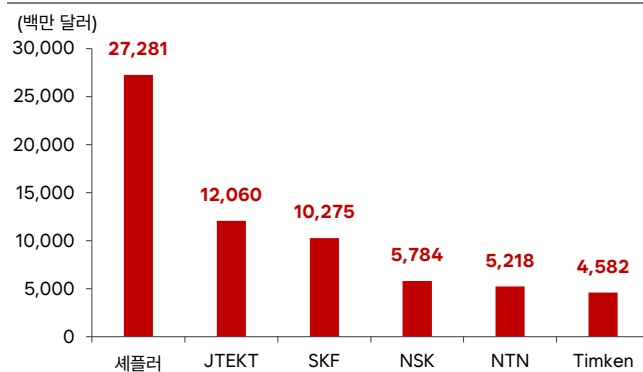
2025년 주요 베어링 업체들의 실적은 자동차 수요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산업재·항공우주향 매출 비중과 원가 개선 여부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스웨덴 SKF는 2025년 매출 915.8억 크로나(-7.2% YoY), 조정 영업이익 116.7억 크로나(-4.2% YoY)를 기록했다. 조정 영업이익률은 12.7%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산업재 부문은 항공우주·마그네틱 베어링과 인도·중국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16.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부문은 4.1% 영업이익률에 그쳤다. 산업재 부문에는 기술 및 인증 장벽이 높은 항공우주용 제품과 마그네틱 베어링, 운할·상태감시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품 차별화와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동차용 베어링 역시 높은 정밀도와 양산 기술이 요구되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구매 협상력이 강하고 차종별 개발·인증과 전용 생산설비가 필요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 2025년 유럽·미주 지역의 자동차 수요 약세와 환율 부담 등이 더해지면서 산업재 부문과의 수익성 격차가 나타났다.

독일 세플러는 2025년 매출 234.9억 유로(-3.4% YoY), 특별항목 제외 EBIT 9.4억 유로(+11.2% YoY)를 기록했다. 세플러의 경우 비테스코 합병 이후 자동차 파워트레인·전동화·애프터마켓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종합 자동차·산업부품 업체로 재편된 만큼 그룹 실적을 순수 베어링 업체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베어링 사업과 직접 관련된 베어링·산업솔루션 부문은 풍력·항공우주 수요 증가와 생산 효율 개선에 힘입어 특별항목(일회성 손익) 제외 EBIT 마진이 6.7%에서 7.5%로 상승했다.

일본 주요 베어링 업체들은 판가 인상과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이익이 반등했다. FY2025 기준 NSK는 매출 9,116억 엔(+14.4% YoY), 영업이익 388억 엔(+36.4% YoY)을 기록했고, NTN은 매출 8,263억 엔(+0.1% YoY), 영업이익 310억 엔(+35.2% YoY)을 달성했다. 다만, NSK의 실적 개선에는 스티어링 사업 재연결 효과가 포함되었고, NTN의 경우 외형의 성장보다 가격 전가와 변동비 절감의 효과가 컸다. 이처럼 일본 베어링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스웨덴 SKF 그룹의 조정 영업이익률과 독일 세플러 베어링·산업솔루션 부문 마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자동차용 제품 비중이 높아 완성차 수요와 가격인하 압력에 대한 노출도가 큰 데다, 중복된 제품군을 둘러싼 경쟁 심화 등이 수익성 개선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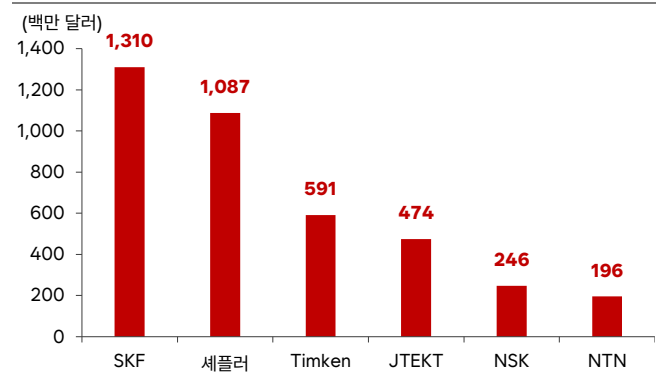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베어링 기업 매출액(2025년 기준)



자료: LSE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일본 기업(NSK, NTN, JTEKT)은 FY2025 기준

글로벌 주요 베어링 기업 EBIT · 영업이익(2025년 기준)



자료: LSE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1) SKF·세플러·Timken은 EBIT, NSK·NTN·JTEKT는 영업이익(OP) 기준

2) SKF·세플러·Timken은 CY2025, NSK·NTN·JTEKT는 FY2025 기준

부문별 수익성 격차에 대응해**SKF는 자동차 사업 분리,****NSK·NTN은 경영통합을****추진하며 비용 구조 개선과****성장 제품 집중을 모색**

베어링 시장의 부문별 수익성 차이는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비용 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SKF는 산업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동차 사업의 분리와 별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NSK와 NTN은 자동차·산업기계 수요 둔화와 전기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5월 경영통합에 합의했으며, 2027년 10월 공동 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NSK와 NTN 양사 통합이 완료되면 단순 합산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SKF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SKF가 저 수익 자동차 사업의 분리를 선택한 반면 NSK와 NTN은 통합을 통해 중복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제품에 자원을 재배분한다는 방향성은 유사하다.

NSK·NTN 경영통합 공시 주요 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통합 배경	자동차산업기계 시장의 성장 둔화, 중국 업체 부상에 따른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 하락 위험에 대응
통합 방식	공동 주식이전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NSK와 NTN을 완전자회사로 편입
추진 일정	2026년 5월 MOU 체결 → 6개월 이내 최종 계약 → 2027년 6월 주주총회 승인 → 2027년 10월 지주회사 설립상장 예정
생산·조달	생산거점 통합, 부품 조달 최적화, 물류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과 원가경쟁력 개선
연구개발	중복 투자를 줄이고 기술·인력·R&D 비용을 공동 활용해 개발 효율성 제고
사업 포트폴리오	로봇·의료·드론·우주 등 성장 분야에 자원을 재배분하고 정밀·특수환경용 제품 확대
판매·서비스	고객 기반·판매망·제품군을 상호 활용하고 애프터마켓 및 제품 생애주기 관리 사업 강화
기대 효과	규모 확대보다 비용 구조 개선과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을 통한 장기 수익성 제고에 초점

자료: NSK·NTN, Notice Concerning Execution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Business Integration, 2026.05.12,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다품종 소량생산 확대로 완성**베어링 업체의 전동체 외주 조달이****늘며, 양산 경험과 가격경쟁력을****갖춘 부품 업체에 성장 기회 제공**

이러한 재편으로 생산 및 조달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완성 베어링 업체들의 부품 조달 전략도 재검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완성 베어링 업체는 전동체의 약 80%를 자체 생산해 왔는데, 표준 규격 제품을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기존 구조에서는 내재화가 원가 절감과 안정적 조달에 유리했다. 그러나 전기차·로봇·항공우주 등으로 적용처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요구 규격이 세분화되고, 다품종 소량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재화 제조라인은 품목 전환 비용과 가동을 저하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전동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베어링 부품 업체는 여러 고객사의 유사 품목에 공통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개별 품목의 물량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원재료 공동 구매와 설비·품질관리 비용 분산도 가능하며, 각 완성 베어링 업체가 물량을 소량으로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높은 가동률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성 베어링 업체는 자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전동체 외주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여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소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재편은 글로벌 업체들의 복수 부품 공급망 구축과 현지 조달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조달하던 일부 전동체를 국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수입 대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동체는 완성 베어링의 수명과 정밀도를 좌우하는 만큼 장기간의 품질 검증과 납품 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규 전동체 외주 물량은 다수 업체로 분산되기보다는 양산 경험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소수 전문업체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 업체들의 성장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베어링 시장은
고정밀·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기반으로
2025년 1,432억 달러에서
2033년 3,013억 달러로
성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베어링 시장은 2025년 1,432억 달러에서 2033년 3,013억 달러로 연평균 9.75%로 성장할 전망이다. 베어링 제품은 자동차와 산업기계 전반에 이미 널리 보급된 성숙 산업/시장이지만, 산업 자동화와 로봇·정밀 제조 분야 확대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전기차와 항공우주 등으로 베어링 적용처가 넓어지며 베어링에 요구되는 성능과 제품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베어링 시장은 외형 확대와 고정밀 제품 비중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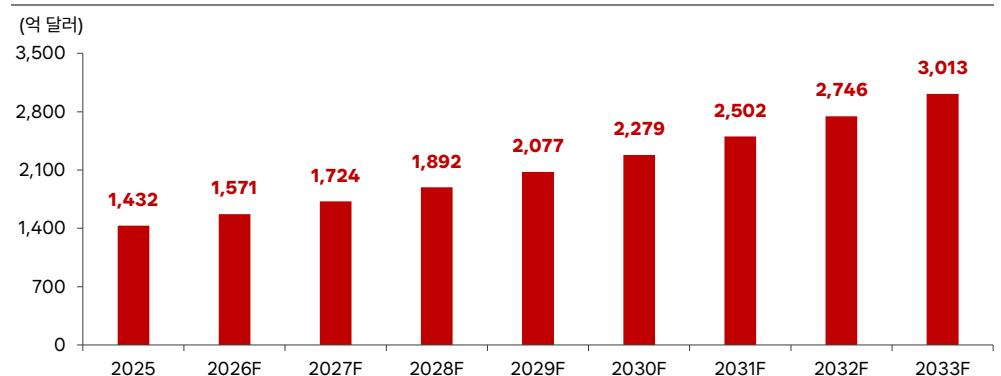
베어링 시장 성장을 이끄는 첫 번째 변화는 자동차의 전동화이다. 전기모터와 감속기는 높은 회전속도에서 작동하므로 베어링에는 저마찰·저진동·고내구성이 요구된다. 엔진 소음이 사라지면서 구동계의 진동과 소음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점도 전동체의 진원도와 표면 품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다. 완성차 생산량의 증가가 제한적이라도 전기차 비중이 상승할수록 고정밀 전동체 수요와 그 부가가치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우주·방산·로봇 분야도 고정밀 전동체의 신규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과 발사체, 유도무기 등에 적용되는 전동체는 고속·고온·고하중 환경을 견뎌야 하므로 소재와 가공 정밀도, 품질 인증 기준이 높다. 로봇 역시 관절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 수가 증가하면서 감속기에 적용되는 소형 스틸볼과 실린드리컬롤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물량은 작지만 제품 단가와 진입장벽이 높아 전동체 기업의 제품믹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세라믹 베어링도 전기차와 산업용 고속모터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질화규소 세라믹볼은 전기 절연성과 경량·내열 특성을 갖추어 모터 베어링의 전식과 마찰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다만 높은 소재 및 가공 비용이 제품 채택 확대를 제약하고 있어, 향후 시장 확산 속도는 요구 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양산기술과 원소재 공급망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베어링 시장은 전기차·항공우주·방산·로봇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고정밀·고부가 베어링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베어링 부품인 전동체 시장의 경쟁 기준도 가격뿐 아니라 정밀가공 기술, 양산 수율, 고객사 인증과 원가경쟁력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고정밀 제품을 안정적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양산할 수 있는 베어링/베어링 부품 전문업체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베어링 시장 규모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생산 Capa 증설을 통한 성장 기대

**3Q26말 생산 Capa 증설 완료
예정으로 연매출 가능 규모가
약 700억 원에서 800~85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

엔비알모션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여 오는 3Q26말 생산 Capa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밀양본사 553억 원, 창원공장 70억 원으로 동 증설을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엔비알모션은 현재 Capa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밀양본사 내 테이퍼롤러 제조 라인 전반을 창원공장으로 이전시키고, 밀양본사 빈 공간에 스틸볼 제조 라인을 기존보다 확장하여 셋업 중이다. 이러한 제품별 생산 재배치 및 확장을 통하여 동사는 매출 가능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생산 Capa 확대에 의해 엔비알모션의 연매출액 가능 규모는 기존 약 700억 원에서 800~85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테이퍼롤러와 스틸볼의 제품별 Capa 비중은 기존과 유사하게 7:3 체제(외부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베어링레이스 제외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Capa 증설로 완성차 H·K사의
중국산 스틸볼 국산화 대응이
가능해지며, 100억 원 규모
초도 수주를 확보**

동 Capa 증설을 통해 엔비알모션은 기본적으로 향후 전사적인 매출액 확대가 가능함은 물론, 완성차 최종 고객층 스틸볼 국산화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2025년 국내 대형 완성차 기업인 H사, K사는 자사 제품 제조를 위해 공급을 받는 중국산 베어링 부품 물량을 국산화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사와 국내 모 경쟁사(비상장사)가 이를 양분하여 공급할 것을 결정했다. 동 프로젝트 관련하여 엔비알모션은 100억 원 규모의 스틸볼 초도 수주를 既 획득하였다. 2026년 이와 관련된 동사 매출액은 약 70억 원 내외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동 국산화 프로젝트 관련 H사, K사향 국산화 대체 스틸볼 최대 발생 가능 물량은 매출 기준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기에서 동사가 담당할 수 있는 궁극적 물량(전망)은 50~60% 비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엔비알모션은 스틸볼 제조 Capa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번 증설은 이의 첫 단추 격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안정적인 생산 Capa가 先 확보되어야만 증가하는 고객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증설은 필요한 과정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베어링 부품 국산화를 이끌어낸 요인은 동사의 높은 기술력에 기반했다. 엔비알모션의 핵심적 기술력을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Metal Flow 기반의 냉간 단조 및 형상 제어 기술, 2) 열처리/잔류응력 제어 및 고내구성 표면처리 기술, 3) 초정밀용 G5 등급 연마 및 자동 계측/생산 시스템 구축 기술이 그것이다.

엔비알모션 핵심 기술력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7년부터 신제품(세라믹볼) 매출 발생 기대

3Q27부터 신제품 세라믹볼
판매를 시작해 중장기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엔비알모션은 3Q27부터 신제품인 세라믹볼 제품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동 제품은 동사의 신 성장동력 중 하나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라믹볼은 내열·절연·경량성이
우수한 고부가·고난이도 부품으로,
전기차·반도체·의료 장비 수요가
증가

세라믹볼은 고온, 고압 저항성이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좋으며, 전기 절연성 및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고부가 베어링 부품이다. 또한 스틸볼 대비 경량성이 우수한 장점도 있다. 세라믹볼은 일본, 독일 업체 중심으로 소수의 베어링/베어링 부품업체가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고난이도 제품이며, 전기차, 반도체장비, 산업용/의료용 장비, 신재생에너지 기구/장비 등에 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라믹볼 제품 특징

[Key Features]		
고온 저항성	고압 저항성	내마모성
부식저항성	전기 절연성	경량화 가능

• EV, 반도체장비, 산업용/의료용 장비, 신재생에너지 등 전방 산업 수요 증가
• 일본, 독일 중심 제한된 업체 공급 중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엔비알모션은 세라믹볼 제품 상용화를 위해 2021년경부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라믹볼 제품 개발 국산화 국책과제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세라믹 소재 연마 테스트와 세라믹용 황삭, 연마, 래핑설비 개발을 완료했다. 2023년 완성차 H사향 세라믹볼 국산화 프로젝트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2024년 H사향 프로젝트 관련 최종 개발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국내 모 소재업체와 소재 및 가공 공정 합작투자 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일본 S사와 세라믹 OEM 계약도 체결하며 사업화를 준비하였다.

국내 업체와의 질화규소**공동개발로 일본산 대비 30%****이상 원가 절감이 가능**

세라믹볼 제품을 사업화할 때에 가장 난제는 소재였다. 일본산 소재는 퀄리티는 보장되나 공급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아 사업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엔비알모션은 국내 모 소재업체와 협업하여 세라믹볼 소재인 고부가 질화규소 개발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일본산 소재 대비 30% 이상 소싱 원가절감이 가능해졌다.

1차 벤더 S사-완성차 H사 인증을**4Q26 확보 시 3Q27부터****매출이 발생하며, 스틸볼 대비****높은 ASP로 우수한 마진 기대**

세라믹볼 제품 관련 1차 벤더인 S사 및 완성차 H사의 제품 인증을 4Q26 중에는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기타 고객들에 대한 테스트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 H사향 제품 인증을 예상대로 4Q26에 득한다면, 초도 납품 물량을 잠정 확정된 이후 3Q27부터는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 인증 및 물량 확정 시 2026년 연말경 밀양본사 내에 관련 설비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연간 세라믹볼 매출액 규모는 약 12억 원을 전망한다. 양산 첫해이고 3분기부터 생산하여 연간 수치가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연간 온기로 매출을 진행할 2028년에는 적어도 연간 30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대한다. 2027년 중 양산 램프업 속도 및 고객 반응을 지켜봐야 겠으나, 상황에 따라 설비투자를 추가할 시 2028년 매출액 규모는 현재 전망치를 상회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스틸볼, 세라믹볼의 평균제품단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스틸볼 ASP(평균판매단가)가 통상 70~80원 수준인 반면, 세라믹볼 ASP는 1,500~1,6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사업이 안정화될 시 세라믹볼의 마진이 스틸볼 마진 대비 우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장기적으로 실린드리컬롤러 사업화 기대**실린드리컬롤러는 2028년****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

엔비알모션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린드리컬롤러(Cylindrical Roller)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동 제품은 단기적인 실적과 관련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 관점에서 실린드리컬롤러는 성장성에 긍정적인 전망이다.

실린드리컬롤러는 원통형 모양의 베어링 부품으로, 회전체와 고정부 사이의 방사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특히 로봇용 감속기에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린드리컬롤러는 테이퍼롤러보다 더욱 고부가제품으로, 고하중 지지 능력과 저마찰 특성으로 인해 전기차, 로봇,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 쓰임새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동 제품도 향후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동사 신성장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엔비알모션 실린드리컬롤러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 실적 review

2025년 매출액 631억 원
(-1.2% YoY), 영업손실 39억 원
(적자지속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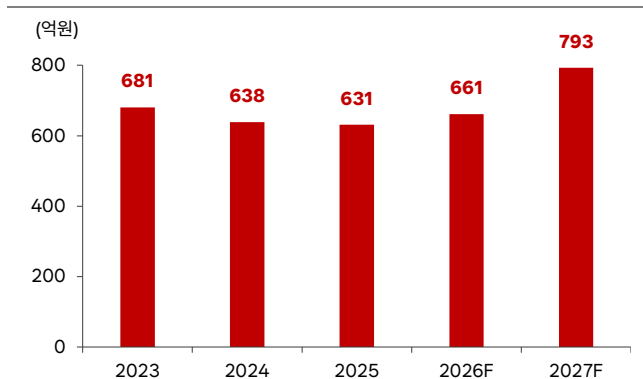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638억 원 대비 1.2% 역성장한 631억 원을 기록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테이퍼롤러 매출액은 2024년 366억 원에서 2025년 382억 원으로 4.4% 증가했다. 주요 경쟁사 대비 동등한 기술력을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주요 고객 내 물량 확대가 진행되었다. 스틸볼 등 매출액은 2024년 176억 원에서 2025년 19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시장 수요 중 일부 일본산 대체 수요를 흡수하였다. 반면, 베어링레이스 등 매출액은 2024년 97억 원에서 2025년 59억 원으로 38.7% 역성장했다. 동 제품은 외주생산을 통해 제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는 제품으로, 동사의 주력 제품은 아니다. 동 제품 관련 특정 고객의 수요 감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41억 원과 유사한 수준인 -39억 원을 기록했다. Capex 증가를 위한 설비투자가 없었기에 2025년 매출액은 전년대와 유사하였고 이익 수준도 큰 변화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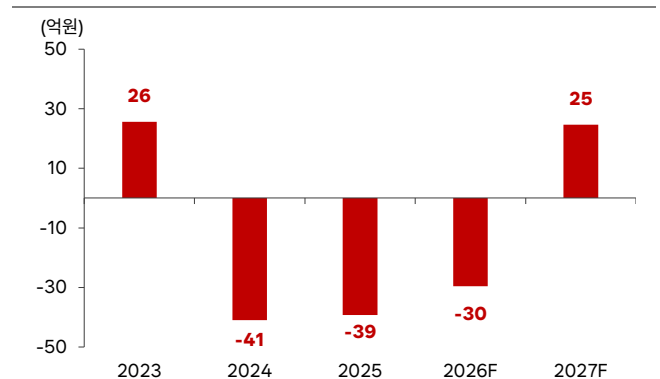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은 2024년 -76억 원에서 2025년 -122억 원으로 악화되었다. 전년대와 영업적자가 유사했음에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영업외수지 중 기타손실의 변동 때문이었다. 2025년 기타손실은 86억 원으로 전년 15억 원에서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합병비용 계상과 대손상각비 인식에 기인했다. 엔비알모션은 2025년 2분기에 미래에셋비전기산업인수목적3호스팩과 합병을 결의(이사회 결의)하였고, 이로 인해 합병비용 69억 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했다. 한편, 연중 관계기업인 (주)데이먼인더스트리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4억 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것도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비용 등의 일부 비용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은 -122억 원으로 부진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F, 2027F 실적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61억 원(+4.8% YoY),
-30억 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661억 원(+4.8% YoY), -30억 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망한다.

테이퍼롤러의 경우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0% 성장한 439억 원으로 예상된다. 3분기경부터 Capa 증설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틸볼 등 2026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14.0% 증가한 217억 원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어링레이스 등 2026년 매출액은 전년 59억 원 대비 급감한 5억 원 매출액이 전망된다. 주요 고객 요구 등으로 외주생산업체의 교체 작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어 2026년 관련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 제품은 동사 주력 제품이 아니며 2026년 관련 매출 부진은 2027년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39억 원에서 소폭 개선된 -30억 원으로 전망한다. 보수적인 추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apa 증설의 효과는 9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만큼 연간 매출액 증가가 당장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익 측면에서도 2026년에는 제한적 개선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오는 9월을 기점으로 동사 Capa는 연매출액 기준 800~850억 원 이상으로 기존(700억 원) 대비 상향될 것은 명백하므로 증설 관련 온기 효과는 2027년에 기대해 볼 수 있다.

**2027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793억 원(+19.9% YoY),
25억 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

2027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793억 원(+19.9% YoY), 25억 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한다.

테이퍼롤러의 경우 202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0% 성장한 509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온기로 Capa 증설된 효과가 기대된다. 스틸볼 등 202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249억 원으로 전망된다. 베어링레이스 등 2027년 매출액은 전년 5억 원 대비 회복되어 매출액 22억 원이 전망된다. 베어링레이스 관련 외주생산업체 교체가 2025년 연중 마무리되어 이후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보수적으로 그 회복세는 2025년 수준으로 단번에 올라서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2027년에는 신제품인 세라믹볼 매출액 발생을 전망한다. 관련 매출액 규모로는 연간 12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2027년 3분기부터 세라믹볼을 생산하여 연간 수치가 기대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세라믹볼은 중장기적으로 동사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을 기대한다. 영업이익은 2026년 -30억 원에서 개선되어 2027년 25억 원 흑자 달성을 전망한다. 기존 사업의 Capa 증가 효과와 테이퍼롤러 위주 제품믹스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베어링레이스 등 매출 일부 회복세와 신제품 세라믹볼의 매출 발생 등이 전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81	638	631	661	793
① 테이프롤러	392	366	382	439	509
② 스틸볼 등	164	176	190	217	249
③ 베어링레이스 등	125	97	59	5	22
④ 세라믹볼	-	-	-	-	12
영업이익	26	-41	-39	-30	25
지배주주순이익	-49	-76	-122	-37	6
YoY 증감률					
매출액	-	-6.2	-1.2	4.8	19.9
영업이익	-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순이익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이익률	3.8	-6.4	-6.2	-4.5	3.1
지배주주순이익률	-7.2	-11.9	-19.4	-5.5	0.7

자료: 엔비알모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F PSR 1.0배로 거래 중
**2026F PSR 기준 코스닥 대비
할인 거래 중**

2026년 7월 23일 기준 엔비알모션 시가총액은 650억 원 수준이다. 2026F 엔비알모션의 예상 PSR은 1.0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 1.9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Peer로는
에스비비테크·씨에스베어링 선정**

엔비알모션은 테이퍼롤러, 스틸볼 등 베어링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정밀 구동부품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박원, 에스비비테크, 씨에스베어링 등이 있다. 동사 Peer로 에스비비테크, 씨에스베어링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기업간 비교 지표로는 2026F PSR을 선택했다. 참고로 박원의 경우 동사와 사업 유사성이 높고 업계 내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비상장 기업이므로 불가피하게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6F 기준 3개사의 PSR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1.0배 VS 에스비비테크 19.7배 VS 씨에스베어링 0.7배).

에스비비테크 2026F PSR은 19.7배로, 동사와 씨에스베어링 대비 할증을 받고 있다.

에스비비테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용 정밀 베어링과 로봇 관절 구동용 하모닉 감속기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최근에는 감속기에 모터-제어기를 결합한 액추에이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방산 등을 신규 수요처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25년 매출액은 72억 원, 영업손실은 69억 원으로 아직 적자 상태이나, 로봇·휴머노이드 시장 개화에 따른 감속기/액추에이터 매출의 본격 성장 기대가 크다. 이처럼 현재 실적보다 향후 성장 기대가 밸류에이션에 선반영되어 있는 점이 높은 PSR 할증의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씨에스베어링 2026F PSR은 0.7배로, 동사와 에스비비테크 대비 할인을 받고 있다.

씨에스베어링은 풍력 타워 업체인 씨에스윈드의 자회사로, 풍력터빈용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대형 베어링 전문기업이다. GE(현 GE버노바)에 15년 이상 제품을 공급해온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Vestas, Siemens Gamesa 등 글로벌 풍력터빈 업체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베트남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202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전방인 풍력 산업이 각국 정책과 프로젝트 발주 일정에 민감하여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고, 대형 단조 가공 위주의 부품 사업 특성상 이익률이 제한적인 점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PSR을 보이는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S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7,097	5,632,019	3,712,325	3,917,205	4,046,663	0.5	0.9	1.3	0.8	1.3	1.8
코스닥	790	439,625	332,644	361,445	129,026	1.0	1.4	1.9	1.5	2.1	2.6
엔비알모션	5,900	65	64	63	66	-	-	1.0	-	-	2.1
에스비비테크	35,600	237	5	7	12	20.3	31.6	19.7	8.8	18.3	15.1
씨에스베어링	4,015	109	105	126	149	1.1	1.3	0.7	1.3	1.6	0.9
동종업종 평균						10.7	16.4	10.2	5.1	10.0	8.0

주: 1) 2026년 07월 23일 종가 기준, 2) 동사 외 26F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자료: Fn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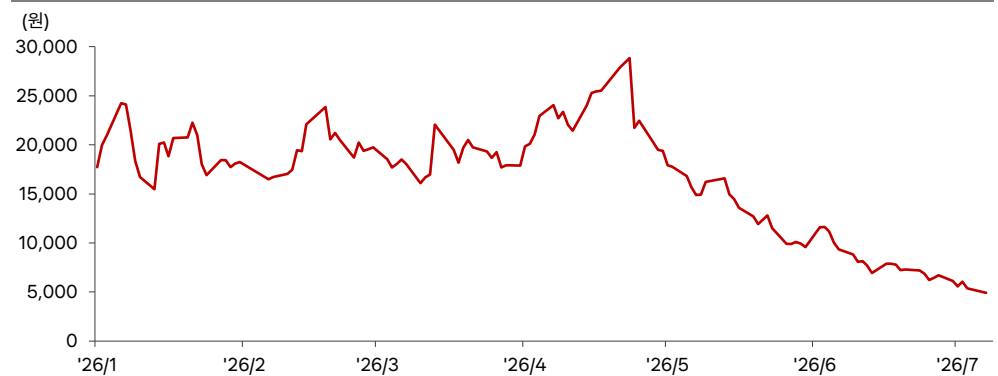
참고로 엔비알모션 2026F 기준 예상 PBR은 2.1배로 ROE가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상 부담이 있다. 2027F에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을 통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당사 전망치 기준으로 2027F ROE 전망치는 +1.8%여서, PBR 멀티플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향후 자동차, 산업 기계용 비중을 낮추고 로봇, 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용 노출을 늘려야 밸류에이션 관련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영업이익 흑자전환 달성이나 세라믹볼의 의미있는 성장 시 시장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음

엔비알모션은 26.01.14에 상장했다. 상장일 증가는 시초가인 17,660원과 유사한 17,710원이었다. 26.07.23 현재까지 동사 주가는 상장일 증가 대비 66.7% 급락했다. 이는 1분기 실적 부진과 코스닥 시장의 소외현상 가속 등 때문으로 해석된다. 엔비알모션은 1분기 매출액 151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57억 원, 0억 원이었던 것 대비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이었다. 이는 Capa 증설 과정 중 생산성이 일시 저하된 것이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 실망 매물이 5월 초중순부터 몰렸다. 또한, 엔비알모션은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소형주로 시장 내 주목도가 약하고 코스닥 시장 부진의 영향도 받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로의 시장 쏠림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크게 소외되고 있다. 참고로 코스닥 지수는 5월 월간 -9.9%, 6월 월간 -14.8%, 7월 월중 -13.7%(7/23 종가 기준) 약세를 시현 중이다.

엔비알모션은 상장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주로, 아직 시장 관심과 신뢰를 얻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향후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통한 영업이익 흑자전환 달성이나 신제품 세라믹볼 매출액의 의미있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동사에 대한 시장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알모션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상장일인 26.01.14 부터 현재까지 주가

리스크 요인
Ⅰ 現 주력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기계의 저성장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

엔비알모션은 베어링/베어링 부품 2차 벤더이므로 정확한 추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사 매출액은 자동차, 산업 기계향 매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산업 기계 분야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전통 산업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며, 동사도 베어링 부품 업계 내 점유율 상승은 가능하나 큰 틀에서는 전방 산업 저성장 영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엔비알모션은 기존 주력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기계 업계에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되 로봇, 우주, 방산 등 미래 성장 산업향 노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성장 관련 의구심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은 산업 태동기이나 그 기대감은 2025~2026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IT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완성차 공장에 투입하여 여러 제조 공정에서 일부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당 40~5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 즉 관절 모듈 부품이 들어가는 바, 이는 베어링/베어링 부품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도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RX(Robotics-eXperience, 로보틱스-경험)사업추진실을 전격적으로 신설하였다. 로봇 사업의 실행 속도를 올려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의 로봇 사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4년말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이후 다소 홍보했던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화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방 산업과 관련 주요 고객들의 행보는 베어링 부품 산업 성장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 엔비알모션은 이러한 미래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매출액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 이미 단계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그 변동 속도/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81	638	631	661	793
증가율(%)	N/A	-6.2	-1.2	4.8	19.9
매출원가	624	635	623	635	707
매출원가율(%)	91.6	99.5	98.7	96.1	89.2
매출총이익	57	3	8	26	86
매출이익률(%)	8.4	0.5	1.3	4.0	10.8
판매관리비	31	44	47	56	61
판매비율(%)	4.6	6.9	7.4	8.5	7.7
EBITDA	80	13	9	31	86
EBITDA 이익률(%)	11.7	2.0	1.5	4.6	10.8
증가율(%)	N/A	-83.7	-29.3	232.8	180.1
영업이익	26	-41	-39	-30	25
영업이익률(%)	3.8	-6.4	-6.2	-4.5	3.1
증가율(%)	N/A	적전	적지	적지	흑전
영업외손익	-65	-44	-90	-19	-22
금융수익	10	39	25	27	26
금융비용	71	76	32	30	33
기타영업외손익	-4	-8	-83	-16	-15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3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39	-88	-130	-49	3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10	-13	-7	-12	-3
계속사업이익	-49	-76	-122	-37	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9	-76	-122	-37	6
당기순이익률(%)	-7.2	-11.9	-19.4	-5.5	0.7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9	-76	-122	-37	6

현금흐름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6	-48	69	21	57
당기순이익	-49	-76	-122	-37	6
유형자산 상각비	54	52	43	55	56
무형자산 상각비	0	2	5	5	5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4	-60	43	-2	-10
기타	67	34	100	0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8	-24	-38	-76	-6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1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0	-25	-40	-70	-60
기타	-19	0	2	-6	-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3	66	-20	-20	2
차입금의 증가(감소)	42	-24	-18	-20	2
사채의증가(감소)	-72	109	8	0	0
자본의 증가	1	7	3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34	-26	-13	0	0
기타현금흐름	0	0	117	0	0
현금의증가(감소)	5	-6	127	-75	-5
기초현금	2	7	2	129	54
기말현금	7	2	129	54	49

재무상태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유동자산	288	300	393	330	380
현금성자산	7	2	129	54	49
단기투자자산	1	1	0	0	0
매출채권	131	128	111	116	140
재고자산	139	161	146	153	183
기타유동자산	9	8	7	7	8
비유동자산	515	482	471	486	489
유형자산	354	344	365	381	385
무형자산	20	18	13	14	13
투자자산	27	12	0	0	0
기타비유동자산	114	108	93	91	91
자산총계	803	782	863	816	869
유동부채	770	457	395	382	419
단기차입금	247	197	160	139	139
매입채무	103	79	103	108	129
기타유동부채	420	181	132	135	151
비유동부채	73	138	124	127	137
사채	0	73	48	48	48
장기차입금	3	3	5	5	5
기타비유동부채	70	62	71	74	84
부채총계	843	594	519	509	556
지배주주지분	-40	188	344	307	313
자본금	21	75	104	104	104
자본잉여금	65	187	427	427	427
자본조정 등	0	1	5	5	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10	10	10
이익잉여금	-126	-74	-202	-239	-233
자본총계	-40	188	344	307	313

주요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F	2027F
P/E(배)	N/A	N/A	N/A	N/A	113.9
P/B(배)	N/A	0.0	0.0	2.1	2.1
P/S(배)	0.0	0.0	0.0	1.0	0.8
EV/EBITDA(배)	8.2	32.3	18.9	28.7	10.3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881	-1,134	-1,260	-341	52
BPS(원)	-713	2,246	3,306	2,791	2,843
SPS(원)	12,233	9,544	6,492	6,153	7,20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23.0	-102.7	-46.1	-11.3	1.8
ROA	-6.1	-9.6	-14.9	-4.4	0.7
ROIC	N/A	-9.4	-8.4	-4.6	10.3
안정성(%)					
유동비율	37.4	65.6	99.4	86.3	90.6
부채비율	-2,116.1	316.7	150.9	165.7	177.8
순차입금비율	-1,643.2	223.5	50.6	74.4	75.4
이자보상배율	0.8	-1.4	-1.7	-1.6	1.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8	0.8	0.8	0.8	0.9
매출채권회전율	5.2	4.9	5.3	5.8	6.2
재고자산회전율	4.9	4.2	4.1	4.4	4.7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엔비알모션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27	엔비알모션-기술력 높은 베어링 부품 강소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